

2011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뉴스레터 **통 4권**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2011 <http://kowin.mogef.go.kr>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2011

미서부 LA지회





KOWIN 소개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활용하고 국내·외 여성 및 세계 각 지역 한민족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2001년 여성부 출범과 더불어 개최하여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 국내외 한민족 여성들의 연대강화와 상호교류, 재외 한민족 여성 리더 양성, 한민족 여성의 정체성 제고를 통한 세대간·지역 간 연대 강화 및 한민족 여성네트워크의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회의에는 여성부 선임 지역담당관, 연도별 주제에 적합한 한민족 여성리더(여성CEO,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예술인, 과학자, 교육자 등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민족 여성)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통해 한민족 여성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하고 국내·외 한인여성간의 실질적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여성인적자원 발굴과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한민족 여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

- 우리는 한민족여성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건강한 자아상을 키워가며, 지도자적 자세로 당당히 살아간다.
- 우리는 한민족임과 동시에 거주하는 세계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며 그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인이다.
- 우리는 각자의 개성과 환경을 이해하며 가진 재능과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눈다.
- 우리는 우리의 네트워크를 소중히 여기며, 속한 회원간의 우애증진과 상호교류, 이익 창출과 미래번영을 도모한다.
-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격려하며, 풍요로운 번영과 행복의 꿈과 비전을 함께 키워나간다.
-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소외된 지역의 여성들에게 도움과 베품의 손길을 펴나간다.
- 우리는 앞 세대를 존경하고, 차세대와 후세대를 중히 여기며 이들을 위한 교육과 장려를 아끼지 않는다.
- 우리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며, 세계안의 하나 됨을 잊지 않는다.
- 우리는 평화와 친환경, 인류의 발전과 역사에 적극 기여한다.
- 우리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창조하며 함께 승리한다.

| 인사말씀 |



이혜심
KOWIN LA 회장

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레터지 발간 통권 제4호를 맞아 KOWIN LA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힘이 지구촌 곳곳에 울려 퍼지기 바라는 마음을 소식지에 담았습니다. KOWIN을 향한 꿈과 사랑, 실천을 이야기하며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묵은지 같은 정을 나누며 다양한 체험과 능력으로 함께 섬겨주신 임원들과 회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KOWIN LA 지회가 큰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의 노력으로 이끌어 주신 이영희 전 미서부 담당관계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KOWIN 여성리더들과 더불어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며 상생하고 발전하는 기쁨을 모두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초 호주의 대홍수로부터 뉴질랜드 강진, 일본 센다이 지진과 쓰나미, 미중부 토네이토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의 급증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이 속수무책입니다. 물부족, 식량부족, 노령화, 환경파괴와 같은 지구문제는 제쳐두고라도 문명 이기의 발달은 또 다른 재해를 부추깁니다. 도시 문명화가 가속될수록 우리 인간의 활동영역은 넓어지면서 다른 종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성이 발벗고 앞장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1 KOWIN 울산대회에서 Green Korea를 외치며 함께 했던 열망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배우며 가르치고 숭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는 일에 동참하면서 다음세대들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요동치는 세계 경제와 혼란스러운 정치 흐름을 지켜볼 때 불안한 미래에는 몇몇 전문가들보다는 집단의 지성이 필요한 시기임을 통감합니다.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책임있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노라면 꿈꾸었던 일들이 현실을 향해 가까이 다가옴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류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차세대들이 민족정체성을 지켜가도록 지원하며, 세대를 초월하는 유대감을 가정으로부터 긴밀히 형성하도록 격려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공동체의 훌륭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Albert Schweizer는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해야할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가치를 공유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새역사와 새희망을 열어가는 세계속의 한민족 여성으로 KOWIN LA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팍과 정성, 인내와 고통을 바탕으로 조금 더 기대치를 높이면서 사랑의 큰 뜻을 펼치며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1일
KOWIN LA 회장 이혜심

| 축 사 |



이정순
미서부 담당관

안녕하십니까? KOWIN 제5기 미서부지역 담당관에 취임한 이정순입니다. 미서부지역의 중심지인 로스엔젤레스 지회의 News Letter 4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영희 전임 담당관의 노력으로 미서부지역은 하나의 견고한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책 개발에 정진 할 때입니다. 미서부지역의 사업 목표를 정하고 Korean-American으로서 정체성 갖고 정진해 나갑시다.

금년 목표는 정책 개발 위원회를 두고 미주 한인 사회 실정에 합당한 정책을 개발하여 각 지회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저는 담당관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번 울산에서 열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그린 코리아를 이끈다" 주제에 대한 정책 개발 위원회를 LA지회에서 설립을 하여 이영희 전 담당관을 비롯하여 역대 담당관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 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미주 한인 사회 미래의 발전은 우리 여성들의 검소한 생활과, 따스한 모정속에 자녀들을 키워냈기에 밝은 미래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성의 역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모성이 집결한 단체가 KOWIN입니다.

금년에는 유타에 지회를 설립하고, 명년에는 하와이 지회의 설립을 추진 해 봅시다.

LA지회는 서부지역의 중심이란 자부심을 갖고 회원 여러분이 서부지역 KOWIN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News Letter 4호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이혜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격려사 |



이영희 이임 담당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함께>

나뭇잎이 곱게 물든 이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맞아 KOWIN 미서부 LA 지회가 뉴스레터 통권 4회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 전, 미서부 담당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은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님과 함께>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세계 36개국에 살고 있는 한인 여성들이 한민족 여성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서부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도 한인 인구의 규모에서도 다른 지역과는 비할 수 없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각 지회 회장단 및 회원들과의 연대강화, 지회설립, 한식을 통한 우리 문화를 미주류사회에 알리는 일 등을 통해 코윈 미서부 지역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여성지도자 발굴 및 양성, 회원 배가운동 등에도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참정권 시대를 맞아 본국의 정치인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어 여성의 참정권을 고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각 지회 회장님 및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협조와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수 전 총영사님, 그리고 신연성 총영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택에 코윈 미서부가 동포사회에서 인정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LA지회가 타 민족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교류와 협력을 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뉴스레터가 회원 상호간은 물론 동포사회와 소통하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이 시기에 뉴스레터를 만드시느라 애쓰시는 이혜심 회장님, 정영태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KOWIN 미서부 LA지회가 신임 이정순 담당관님의 탁월한 지도력에 힘입어 동포사회를 빛내고 사랑받는 LA지회가 되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



LORETTA SANCHEZ
47TH DISTRICT, CALIFORNIA

WASHINGTON OFFICE
1114 LONGWORTH BUILDING
WASHINGTON, DC 20515-0546
(202) 225-2965
(202) 225-5859 FAX

DISTRICT OFFICE
12397 LEWIS STREET,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0-4695
(714) 621-0102
(714) 621-0401 FAX

E-mail:
Loretta@mail.house.gov

Website:
www.house.gov/sanchez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COMMITTEE ON ARMED SERVICES
SUBCOMMITTEES:
CHAIRWOMAN, TERRORISM, UNCONVENTIONAL
THREATS AND CAPABILITIES
MILITARY PERSONNEL
STRATEGIC FORCES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SUBCOMMITTEES:
BORDER, MARITIME AND GLOBAL
COUNTERTERRORISM
EMERGING THREATS, CYBERSECURITY,
AND SCIENCE AND TECHNOLOGY
JOINT ECONOMIC COMMITTEE

November 11, 2011

Dear Friends: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the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KOWIN) Los Angeles Chapter for your tremendous commitment to serv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Southern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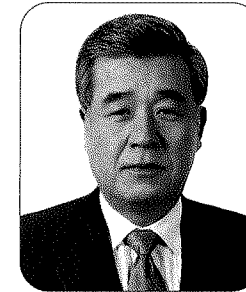
Since the founding of KOWIN by The Department of Gender Equity of the Korean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2001, you have not only created a strong network of service oriented women, emboldened civic duty, cultural education and awareness, community service through your own example. Your network continues to strengthen the friend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you continue fostering the strong bond between the women i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Your leadership has made you role models for many young women. With women like President Heasim Lee of the LA Chapter, KOWIN will continue to thrive and empower Korean American wome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Very truly yours,

Loretta Sanchez
Member of Congress

| 축사 |



신연성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세계 한민족여성 네트워크 (KOWIN) 통권 4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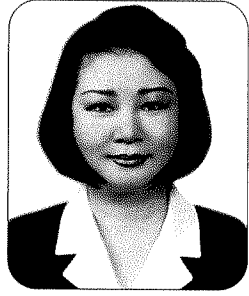
지난 2001년 창설된 세계 한민족여성 네트워크(KOWIN)는 올해로서 1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0여년간 KOWIN은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리더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한민족 여성인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 동포사회와 고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 8월 말에는 울산에서 '글로벌 한민족 여성, 그린코리아를 이끌다' 라는 주제 아래 '2011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행사가 개최되어 32개국에서 참석한 530여명의 국내외 여성리더들이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그린코리아' 를 이끌기 위한 글로벌 한민족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한민족여성 네트워크가 한민족 여성들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글로벌 코리아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세계 한민족여성 네트워크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7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신연성



2011 차세대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를 마치고
“Transformation through Communication”
 (변화를 위한 소통)

권명주 KOWIN LA 부회장, 컨퍼런스행사 준비위원장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미 서부 LA 지회는 지난 6월 11일 미국 서부 Norwalk에 위치한 Double Tree Hotel에서 차세대 여성 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했다. KOWIN은 지난 2001년 창립 이래 올해 11주년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KOWIN은 세계 각 지역 동포사회의 여성리더들을 네트워크화하여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물론 고국과 동포사회 간의 유대관계 증진에도 눈부신 기여를 하였다. 급변에 열린 컨퍼런스는 ‘변화를 위한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적 여성 국회의원인 나경원의원을 주제 강사로 초청하여 차세대 여성리더들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기조연설자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과, 동 대학원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한나라당 공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 스포셜 올림픽 회장, 2013 평창 동계 스포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국회연구단체 장애아 ‘We Can’ 회장, 한국장애인 부모회 후원회 공동대표, 손기정 기념재단 공동 이사장 및 이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여성리더이다.

■ 나경원의원은 강연 서두에서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은 여자라기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속에서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했던 과거 한국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지금은 한국사회가 선진화 되면서 한국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성평등(性平等)’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도 지적했다. 문제는 바로 한국의 여성리더십 분야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것에 이유를 들고,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여성의원의 수는 41명(13.7%)밖에 되지 않음을 예로 들어 주었다.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에서 4명중 1명이 여성인데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이 8%에 불과함을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풀어주며 강의를 진행했다.

정보화시대에는 대화와 설득, 토론을 통해서 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특히 여성 특유의 세심함, 감성적 소통능력, 그리고 모성적인 강인함 등을 본질로 하는 여성리더십이 앞으로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의지를 보여 주었다. 질례의 첫 여성대통령 출신으로 유엔의 새 여성기구 ‘유엔여성’의 수장을 맡은 미셸 바첼레트는 “여성의 강점, 여성의 근면성, 여성의 지혜는 인류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자원”이라고 주장한 강한 예를 들어주었다. 청중 중에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정과 사회 일을 잘 조화있게 병행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에 나 의원은 가정일 중 음식 만드는 일, 청소하는 일 등 같은 것은 본인보다도 더 잘하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 남편에게는 아내로서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지만 남편의 이해와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고, 특히 자녀와의 문제에는 어느 부분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하였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꼭 필요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즉 내 자녀에게는 나 외에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기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어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한다는 응답에 아름다운 외모 이상의 어머니의 참 모습에 많은 여성들의 박수를 받았다.

■ 2부 강의를 맡아주신 Dr. 수지오 교장은 현재 LA 통합교육국 3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USC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 후 CSU의 파트타임 대학교수로도 겸임하고 있고, 2002년 California주 ‘올해의 교장상(Principal of the Year)’ 수상과 ‘조국을 빛낸 해외동포’에 초청되었으며, KOWIN LA 자문의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리더십과 변화관리(Leadership on Facilitating Change)’의 주제를 가지고 그녀만의 특유한 재치와 유머로 강의가 시작되자 청중들의 웃음과 박수소리는 장내를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어갔다. 리더십의 정의(Definition of Leadership)를 강의하는 도중 변화시키는 리더십, 조종하는 리더십, 봉사하는 리더십, 연결하는 리더십 중에서 당신은 어떤 리더십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는 청중들의 얼굴은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기까지 했다. “진정한 리더는 항상 경청하고, 배우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야 하고, 평생 배우는 자가 되세요. 자신을 아십시오.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이용하시고, 자신의 약한 점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십시오. 타인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나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몇 개만 골라서 그 분야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십시오. 리드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자신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강의는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리더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을 다시금 결의케 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을 소개한다는 강사의 말에 우리는 귀를 세우고 무슨 비결일까 궁금해하며 기다리니 바로 그 답은 ‘배움을 중단하는 자는 20세든 80세든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계속 배우는 자는 젊음을 유지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정말 멋진 말이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가운데 ‘교장이란 직업은 도전적이고, 역동적이며, 활기를 갖고 기운을 다 소모하게 만들어 무척 힘들지만, 무엇보다 보람을 안겨주는 직업입니다.’ 하고 강의를 마치면서, 의미 가득 담은 한편의 시(詩)로 우리 모두의 어깨를 세워주었다.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꿈을 주고, 더 배우게 하고,
 더 행동화하고, 더 성공하도록 북돋아 주면
 당신은 리더입니다 “
 - John Quiney Adams -



■ 네 분야로 나누어진 토론시간은 우리 모두가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뜨거운 모습들이었다. 제1분야 건강/의료 성소영박사가 이끄는 ‘건강한 가정’과 메디칼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에 David Kang 전문인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제2분야 ‘교육에 관한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시간에는 초등학생 그룹의 김정혜교장(Wilton Elementary School)과, 중고등학교 그룹의 Elena Paul 교장(Wilson High School)이 맡아 수고 하였고, 제3분야의 이제니회장(KOWIN OC지회)이 이끄는 ‘차세대 Mentoring’ 주제의 테이블에 많은 차세대들의 참여를 보고 이번 행사의 목적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흡족했다. 제4분야는 정치, 사회편으로 외국인(Glenn Palmendo-Smith)이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 6.25 영화 상영을 관람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의식속에 ‘통일’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KOWIN 미서부지역(OC, SF, SD, AZ)이 LA 지회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차세대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통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를 주도하는 많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다녀와서

글로벌 한민족 여성, 그린 코리아를 이끈다

Grace Park Blossom by Grace INC. 대표

'제1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올라 서울을 향하여 비행하는 긴 시간동안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의 여러가지 색깔의 추억들이 하나 하나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좀 더 진취적인 삶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배워 학위를 받고 돌아가서 교수가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미국행을 한지 엇그제 같았는데, 지금은 그 꿈과 반대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람일은 참으로 모를 일이구나! 생각하니 내 입가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3박4일 동안 수놓아질 또 다른 의미 있는 도전을 기대하며 지긋이 눈을 감아본다.

8월29일 첫 날, 33개국에서 참석한 200여명의 국외 참가자들을 위한 현대, 롯데 호텔의 방 배정이 있었는데 우리 미국팀은 현대호텔에 묵게 되었다. 낮 익은 얼굴들의 만남을 기뻐하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KOWIN 길잡이 마당' 첫 행사에 참석하였다. '글로벌 한민족 여성, 그린 코리아를 이끈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3박4일의 일정을 자세하게 브리핑 받고난 후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이 베풀어 주신 만찬은 먼 길을 달려오기에 조금은 허기졌던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준 풍성한 식탁이었다. 내일부터 막을 올릴 Conference의 기대와 설렘속에 대화강의 첫날밤은 조금씩 깊어만 갔다.

8월 30일 둘째 날, 뜨거운 열정으로 국제사회를 리드하여 글로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와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백희영여성부장관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내참가자 330여명과 국외참가자 200여명을 태운 거대한 코윈의 함선은 출항을 하였다. 녹색성장과 산업수도로 넘치는 모습을 이루어낸 오늘의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에 서있는 박맹우 울산 광역시장의 가슴 뿌듯한 환영사에 우리는 손뼉을 치며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봄 미국에서 함께 간담회를 가져 이미 친숙해진 최영희 여성국회의원의 모습에 우리는 들뜬 소녀들처럼 더욱 반갑게 맞았다. 차세대를 발굴하는 문제, 여성평화와 안보의 문제와 더불어 이곳 울산에서의 Conference를 끝내고 각자 맡은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누군가가 리더로서의 우리의 소임을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해 줄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장관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깨의 무거움과 함께 사명의식이 짝트는 순간이었다.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시작됨과 동시에 의지에 찬 모습들로 인해 컨퍼런스의 분위기는 뜨거움과 동시에 엄숙함까지 느껴졌다. '대한민국 브랜드파워로 세계를 움직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며 '브랜드가 힘이 되는 세상', '소프트 파워 시대의 시민', '여성, 문화의 영향력 증대',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재고를 위한 5대 역점 분야 및 10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풀어 말씀하실 때 많은 것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다. 또한 주옥같은 역사속의 여성 Leader들의 'Mentorship'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부흥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박경리, 섣달여왕, 신사임당, 김만덕..... 우리가 만난 많은 분야에서 열성을 가지고 활동한 역사속의 여인들을 우리 차세대에게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현 KOWIN의 사명이자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책임감마저 들었다.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MBM 회장님의 각 도표를 이용한 'One Asia Momentum' 강의는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다.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고, 또 자신만의 물살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 탈

수 있는 자만이 멋진 'One Asia'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과 또한 이미 내딛은 'Moment Effect'의 힘찬 발걸음으로 인하여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의 '21세기의 새로운 질서' 강연에서는 자신만의 'Contents'와 한국인의 'Local' 특징을 세계화에 접속시킬 때에 비로서 멋진 한류가 탄생됨을 깨우쳐 줄 때 자기개발이 곧 나라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귀한 깨달음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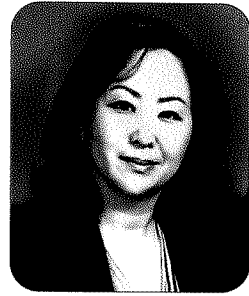
하지원 에코 코리아 대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알린 후 우리의 가정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절약, 물절약, 종이컵 일회용품 쓰지로서 우리 여성들이 여는 그린세상, 곧 녹색산업형성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8월31일 셋째 날, 구수환 KBS PD의 특별 강연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아프리카 수단에서의 의료봉사과 교육활동을 펼치며 살레시오 수도회故이태석 신부는 말기 대장암 투병 중에서도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센병을 비롯한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주민들을 보살피며,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배움을 준 사랑의 사도였다. 말보다 실천이 얼마나 값진 삶인 것을 보여준 '울지마 톤즈'의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서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故이태석 신부가 바로 '신 한류'라는 말에 깊은 동감을 가졌다. '이러한 나눔의 삶을 살아야지!'하는 엄숙함이 우리의 가슴을 억누르는 순간이기도 했다.

경제, 문화, 미래, 환경별로 나누어진 분야별 네트워킹 시간은 참으로 귀한 배움의 시간들이었다. 맛있는 점심을 마친 우리는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을 위해 미리 정해진 버스로 올랐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소풍 길에 오른 소녀들의 들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현대자동차의 놀라운 시설, 세계 각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끝없는 자동차의 행렬, '13분마다 1대(하루에 56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된다'는 안내원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감개가 무량했다. 경주 불국사에 들러 슬픈 사랑을 간직한 '무영탑'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들이 주고받았던 순수하고 아름답던 사랑의 목소리가 지금 내 가슴에까지 전해오는 느낌을 받으며, 최초의 ECHO PARK 울산 대화강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아름다운 석양을 받으며 놀아서 있는 대나무 오솔길,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꽃 들판, 코스모스길, 조롱박, 수세미나무로 하늘을 가린 Tunnel,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마치 우리들은 학창시절로 돌아간듯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꿈을 잡으며 기념촬영을 하는 가운데 녹색환경이 주는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마지막 날인 9월1일은 설레이는 청와대방문이 있는 날이기에 이른 아침부터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 분주했다. 청와대 경비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 잘 가꾸어진 영내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영빈관으로 안내되어 정해진 테이블에 앉아 정성껏 준비된 다과를 들며 옆 사람과의 교제를 나누는 중 오상진 MBC아나운서의 '김윤옥 영부인님' 입장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에서 참석한 우리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한 잿빛 정장의 미소 띤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 손을 흔드시며 들어오시는 영부인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다. 2011 KOWIN 주제인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정적인 삶과 자기개발을 최선을 다하는 삶, 즉 당당한 삶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하셨다.

3박4일동안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산업시찰 및 기관방문, 33개국에서 참석한 활기찬 KOWIN의 많은 친구들과의 만남, 어느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간들이었다. 조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역사속의 여성 Leader들이 현재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었듯이, 우리도 많은 차세대들에게 진정한 'Role Model'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사명임을 깨달았다. 11회 KOWIN Conference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KOWIN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Servant Leadership'으로 살다 가신故이태석 신부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나눔'의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귀우려 본다.



Ellen Park

*"Workplace Habits to Break for Successful Leaders
to Become Even More Successful"*

from What Got You Here Won't Get You There

by Marshall Goldsmith

*Shared by , Principal at Wedgeworth Elementary School, HLPUSD, California,
Pyung Tong L.A. Education Committee Chair & KOWIN Member, October 2011*

As an educational leader/school principal, I have developed a joy of reading influential leaders' published books to enhance my leadership skills. One of the books I particularly enjoyed reading past summer is *What Got You Here Won't Get You There: How Successful People Become Even More Successful* by Marshall Goldsmith.

Marshall Goldsmith is an accomplished "expert" at helping global leaders, one of the executive coaches by *Forbes* and an executive educator by the *Wall Street Journal* who has also worked for Fortune 500 companies. He has been praised as a "great communicator" by *O, The Oprah Magazine* and an "influential practitioner in the history of leadership development" by *Business Week* just to name a few.

In *What Got You Here Won't Get You There*, Mr. Goldsmith shares his wealth of knowledge about how leaders can change for the better to get to the next level of high achievement. I enjoyed the four chapters in his book thoroughly but Chapter 4 titled, "The Twenty Habits" in particular, stuck with me to be the most valuable chapter that helped to reflect and reassess myself as a leader.

These twenty workplace habits Mr. Goldsmith wrote in Chapter 4 are to identify the most common flaws or challenges in interpersonal behavior many leaders may have that can prevent them from becoming better leaders. They are "not flaws of skill, intelligence or personality." They are the "everyday annoyances and transactional flaws performed by one person against others" which we may see in ourselves or face in our workplaces and/or organizations. Let me share them straight out of the book with our KOWIN members who may hope to grow to become even more effective as leaders.

They are these twenty habits we should avoid:

1. "Winning too much: The need to win at all costs and in all situations – when it matters or not.
2. Adding too much value: The overwhelming desire to add two cents to every discussion.
3. Passing judgment: Rate others and impose our standards on them.
4. Making destructive comments: The needless sarcasms and cutting remarks that we think make us witty and sharp.

5. Starting with "No", "But", or "However": The overuse of these words which secretly say, "I am right. You are wrong."
6. Telling the world how smart we are: Show people we're smarter than they think we are.
7. Speaking when angry: Use emotional volatility as a management tool.
8. Being negative, or "Let me explain why that won't work": Share negative thoughts even when we aren't asked.
9. Withholding information: The refusal to share information in order to maintain an advantage over others.
10. Failing to give proper recognition: The inability to praise and reward.
11. Claiming credit that we don't deserve: The most annoying way to overestimate our contribution to any success.
12. Making excuses: Reposition our annoying behavior as a permanent fixture so people excuse us for it.
13. Clinging to the past: Deflect blame away from ourselves and onto events and people from our past; a subset of blaming everyone else.
14. Playing favorites: Failing to see that we are treating someone unfairly.
15. Refusing to express regret: The in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our actions, admit we're wrong, or recognize how our actions affect others.
16. Disrespecting by not listening: The most passive-aggressive form of disrespect for colleagues.
17. Failing to express gratitude: The most basic form of bad manners.
18. Punishing the messenger: The misguided need to attack the innocent who are usually only trying to help us.
19. Passing the buck: Blame everyone but ourselves.
20. Having an excessive need to be "me": Exalt our faults as virtues simply because they are who we are."

Scary, I thought to myself after reading the book, because I probably have displayed many of these habits at one time another in my many years as a leader without realizing it! However, Mr. Goldsmith indicates that these faults are simple to correct to my relief! For example, the treatment for not thanking enough is simply to remember to say, "Thank you." For not apologizing, it's to say, "I am sorry. I'll do better in the future." How hard can that be?

Can you see which of the twenty poor habits on the above list you need to work on? How about working on breaking them and developing more of the positive skills needed to be successful leaders? How about having a discussion with your colleagues or employees who exhibit many of these habits to improve your workplace and/or organization?

At the end of Chapter 4 of *What Got You Here Won't Get You There* is one of my favorite quotes from the book: "Less me. More of them. Equals success."

What Got You Here Won't Get You There: How Successful People Become Even More Successful
by Marshall Goldsmith with Mark Reiter; Hyperion Publisher, New York, 2007



성공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조건

이정희 JPH Consulting INC. CEO / KOWIN 자문위원

저는 1974년 고려대 간호과를 졸업한 후 1975년 미국으로 건너와 어느덧 36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간호사와 양로병원 CEO로 한결같이 의료 사업에 몸담아 왔습니다. 1992년 산타 모니카의 양로병원을 시작으로 하여 19년이 지난 현재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의 라스베가스 등지에 11개의 양로병원과 2000여명의 직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 땅에서 양로병원을 넘어 종합병원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저에게는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Vision이 있었고, 그 Vision이 흑독했던 현실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의료보험 예산을 점점 줄이고 있으며 또한 양로 병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법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또 그들을 보살펴야 할 인력은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극한 상황에 부딪힐 때 지혜가 작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국 간호사가 가진 섬세함과 끈기, 열정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장점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방법이고 미국현실에 꼭 필요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앞으로 양로 병원에서는 노인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마지막을 화려하진 않지만 초라하지 않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는 힘들고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시행하므로 적은예산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의료 예산삭감으로 많은 종합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양로병원으로 보내며 현재 양로병원에서는 예전과 다른 질적 간호로 그분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로병원 또한 계속해서 연구하므로 방법을 찾아야하며, 그 하나의 예로 간호보조원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고임금 저효율적입니다. 고용인을 잘 관리하고 그들의 능력에 맞는 직위는 무엇보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 양로병원의 간호사들은 많은 시간을 약을 주는데 보냅니다. 그러다보니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동안 직접 돌보는 간호보다는 약을 주는 것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간호보조원에게 약을 주는 교육과 훈련을 시킨 후, 교육을 수료한 훈련된 간호보조원이 약을 환자에게 줌으로써 전문 간호인력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들이 줄인 시간을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직접 소비한다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환자들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육하고 평가하므로 더 능력 있고 우수한 인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간호사가 가진 섬세함과 끈기, 열정에 미국식의 의료법을 배워 더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먼저 생각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여성의 능력을 기다리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저의 신념을 나누고자 합니다.

- 꿈을 가져라.
- 끊임없이 노력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
- 머리(생각), 가슴(열정), 손(실행), 3가지를 가져라.

결과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목적은 나의 꿈을 실현하고, 가정과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Callaway Winery를 다녀와서

권유나 KOWIN 홍보위원장

아침부터 모두들 들떠 야단들이다. 10시 출발인데 9시에 벌써 뉴서울호텔에 다와 있다. 무엇을 가져가야 소풍기분? 와이너리로 가는 소풍. Wow... 10월의 포도밭... 추수 때라서 탐스러울 포도, 그리고 잘 익은 포도주를 Italian food 와 함께 멋진 포도밭을 배경으로 한 점심이라니...

멀리 북가주까지 안가도 남가주 San Diego, 인근 테메큘라로 가는 가벼운 소풍이니 드디어 9시 50분 우리를 싣고 갈 Bus 호텔 파킹 랫 도착. 아침 일찍 찍찍에 들러 산 떡, 김밥... 누가 가져왔는지 이것 저것, 점심 나드리인지도 아랑곳 하지 않고 너스레로 자기가 밤새껏 만들었다며 먹어 보란다.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란다... 중간 가는 길에 합류한 Orange team은 한술 더 떠 색색 과일로 난리니 아무래도 맛있는 점심은 늦출수록 나올듯해 15번 Fwy를 천천히 달리시라 운전석에 부탁 했던만 이분도 흥분 하셨는지 11시 30분 벌써 도착 했으니... 우리가 예약한 포도밭을 뒤로하고 다른 곳도 들러 시간을 끌려했는데 다른 집들은 더 난리다. 포도씨 사우나라니? 한번 가보고 싶어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에 또 오자며 이야기 하는 속셈들은 남편과 꼭 와야지 하는 눈치들이다.

이곳 저곳 모두 새 빌딩 건축 리모델링에 난리다. 아마 이곳은 불경기가 없는 모양이다. 멋쟁이 다른 와이너리도 구경할 겸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좀 시간을 끌어 보다가 다음엔 저점으로 가야지 하고 메모해 놓은 뒤 우리가 예약한 집으로 올라갔다.

역시 예상대로 멋진 포도밭이 한눈에 보이는 큰 유리창안에 있는 멋쟁이식당이다. 키 크고 잘생긴 웨이터는 큰 팁 나올 것에 기쁘지, 달라는대로 올리브 오일, 발사믹 비니거에 큰 바구니 이탈리아 빵까지 yes, yes 하면서 서비스 만점이다. 이제 음식 시킬 시간, 이곳 저곳 에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다음은 wine 고르는 시간, 아는 대로 이것저것 해보는데 맛도 모르면서 누군가가 병으로 하면 더욱 경제적이거나? 아는데로 cabinet sauvignon이 \$38.00이다. 고기는 red, 생선은 white. 한잔씩 마셨는데 얼굴들은 빨갛하고, 하고 싶은말 다 하고 정말 좋다. 모두들 축배로 또 부딪치고 또 부딪치며, 사랑 한다고, 고맙다고, 그동안 열심히들 해줘서 자랑스럽다고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지난 몇 년의 회포가 확 풀린 듯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다. 우리 가야 하는데... 아이제 wine taste 시간인데, 틀렸다 모두 한잔씩에 그만... 그래도 하며 taste 하는 곳으로 올라가니 모두들 사진 찍고 이것저것 사느라 바쁜 모습. 그래 해봐야 잘 모르니 그냥 시간 좀 보내고는 모두 밖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모두 서둘러 한 곳 더 들러 가기로 하고 내려와 old town에 들러 약간의 설명과 만날 시간을 정한 뒤 엔틱집으로 향했다.

끼들은 이곳에서도 발취 엘리스는 그림을, 유나는 은장식 골동목걸이를, 은영이는 벨을 하나씩 사들고 네 것은 100년, 내 것은 150년... 혼자 취해 있는 모습에 서로들 웃고 난리다. 돌아오는 길에 나눈 깊이 있는 배려는 다음엔 만날 땐 좀 더 진지하게 돌보자는 눈빛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들이었다. 다음엔 어디로 이런 여행을 할지 기억없이 "내년엔 루마니아에서 KOWINER가 있다는데 우리 지금부터 준비할까?" 그래 그래 하면서...



리더십 챌린지 (Leadership Challenge)

수지 오 LAUSD 교장 · 교육학 박사

학교 교장이라는 한 조직체의 리더(leader)로서 저는 항상 리더십 (leadership)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장으로 19년째 일하고 있지만 계속 너무나 배울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는 Business Week의 best-seller가 된 James Kouzes와 Barry Posner 가 쓴 Leadership Challenge 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며 저의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리더는 다섯 가지의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1. Model the Way (솔선수범할 것)
2. Inspire a Shared Vision (비전을 공유할 것)
3. Challenge the Process (진행 절차에 도전할 것)
4. Enable Others to Act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해줄 것)
5. Encourage the Heart (가슴에 와 닿게 격려할 것)

사람들이 어떠한 성격의 leaders를 원하는지 조사(survey)한 결과, 아래와 같은 점들을 리더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인격 특성들로 꼽았다고 합니다.

- ※ Honest (정직하다)
- ※ Forward-looking (앞을 내다본다)
- ※ Competent (능력이 있다)
- ※ Inspiring (고무적인 감동을 준다)
- ※ Fair-minded (공평하다)
- ※ Broad-minded (마음이 넓다)
- ※ Supportive (도움을 준다)

리더가 되려면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라고 합니다.

1. What do you stand for? Why?
2. What do you believe in? Why?
3. What are you passionate about? Why?
4. What keeps you awake at night? Why?
5. What do you want for your life? Why?

무엇이 좋은 리더를 판가름하는지 상기해봅니다.

- A. 타이틀만 가졌다고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Being a good leader is not something that occurs when you have the title.)
리더는 심오한 사고력, 보살핌, 통찰력, 책무성과 함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It takes great thought, care, insight, commitment, and energy.)
- B. 리더는 공유하는 가치기준을 확립하고 (Build and affirm shared values),
가치와 실천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 (Align action with values.)
- C. 리더는 비전(vision)을 명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leader의 비전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D. 리더는 의견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키며 communication을 늘
원활하게 잘 해야 합니다.
- E. 자신이 최고이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팀워크만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Do not think that you are the best and that you can do everything all by yourself-
only teamwork brings the best results.)
- F.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Listen deeply to others.)
- G. 리더십은 실현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적응함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Leadership is learning by doing, adapting to actual situation.)

저는 3 C's, 즉 Communication(의사소통), Collaboration(협동), Creativity (창의성)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파도타기 하는 surfer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파도의 높이와 강함에 따라 조절하는 surfer처럼 리더는 융통성 있게 조직체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문의: drsuzieoh@gmail.com

| 우먼파워코너 |



노벨평화 여성수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렸을 적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어 보았을 법한 노벨상(Nobel Prize) 노벨상이 올해로 110번째 '생일'을 맞았다. 지난 1901년 이래 생리학이나 물리, 화학, 문학, 평화, 경제 부문 등 총 6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공로자들에게 매년 수여하는 노벨상에 나타난 재미난 숫자와 노벨평화상을 받은 여성 수상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아프리카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마타이

부패한 독재정권의 무차별적인 난개발에 앞서 그린벨트운동을 창시하고 이를 통해 난민들의 자립을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전체의 평화를 앞당긴 작은 거인, '왕가리 마타이' 그녀는 식민지 네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동아프리카 여성으로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이로비아 대학 해부학 교수를 거쳐 학장까지 역임했지만 개인적인 성공을 뒤로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케냐의 환경을 지켜내는데 쏟아 부었다. 부패정권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환경운동가이지만 그린벨트 운동의 창시자, 그리고 독재정권에 대항하며 케냐의 민주화와 아프리카를 위해 평생을 바친 평화의 혁명가 왕가리 마타이의 삶속에는 억압과 핍박, 그리고 도전과 굴복으로 이어지는 현대 아프리카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 환경운동을 통해 아프리카의 살아있는 역사가 된 그녀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영혼까지 뒤흔드는 인간승리의 숭고한 삶의 메시지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하는 등불이 될 것이다. 왕가리 마타이는 처음에 집 앞마당에 9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그린벨트 운동을 시작했다. 그녀에게 사과는 생명과 희망을 상징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마 천국은 녹색일거라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를 위하여 검은 대륙에 푸른 숲을 이룬 불굴의 환경운동가,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아왔던 왕가리 마타이는 "환경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환경을 만든다" 는 위대한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기고 2011년 10월 15일 71세의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뜨거웠던 삶을 가슴속에 그려보며 'Green Korea!' 를 외쳐본다.

2011년 노벨수상자

노벨상	수상자
물리학상	Saul Perlmutter (미국), Brian Schmidt (호주), Adam G. Riess (미국)
화학상	Daniel Shechtman (이스라엘)
경제학	Thomas John Sargent, (미국), Christopher Albert Sims, (미국)
문학상	Tomas Tranströmer (스웨덴)
생리학상	Bruce Beutler (미국), Ralph Steinman (미국), Jules Hoffmann (프랑스)
평화상	Ellen Johnson-Sirleaf (라이베리아), Leymah Gbowee (라이베리아), Tawakel Karman (예멘)

숫자로 살펴본 '노벨상 110년'

241 사상 최다 후보자 수
올해 노벨상 후보에는 개인 188명과 단체 53개가 후보로 추천돼 역대 최다 후보자수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전문가들은 후보자 가운데 올해 초부터 계속된 '아랍의 봄' 참가자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의 수상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90/25 수상자 가운데 최고령자와 최연소자의 나이
러시아 태생의 미국 국적 경제학자인 레오니트 후르비치는 지난 2007년 당시 90세의 나이로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반면 영국의 윌리엄 로런스 브래그는 지난 1915년 25살 때 물리학상을 받았다. 이는 지금까지 최연소 노벨상 수상으로 남았다.

41:776 역대 수상자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
1901년 이래 노벨상을 받은 여성의 수는 41명이다. 이 가운데 마리 퀴리는 1903년(물리학상)과 1935년(화학상) 두 번에 걸쳐 수상했다.

6 수상을 거부한 사람 수
1973년 당시 베트남 총리였던 레득토는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과 베트남전 종전 협상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키신저와의 공동 수상을 거부했다. 장 폴 사르트르도 1964년 문학상 수상자로 뽑혔지만 거절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상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다. 아돌프 히틀러의 횡포로 리하르트 쿤(1938년 화학상)과 아돌프 부테난트(1939년 화학상), 게르하르트 도마크(1939년 생리학상) 등 3명이 수상을 포기했다.

'닥터 지바고'를 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도 195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지명됐지만 소련 당국의 지시로 수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노벨평화 여성수상자

1905년	베르타 폰 주트너(Bertha Von Suttner)	오스트리아	'무기를 내려 놓아라'의 작가 국제 평화사무실의 명예의장
1931년	제인 아담스(Jane Addams)	미국	사회활동가 및 평화 운동가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연맹"의 창시자
1946년	에밀리 그린 발치(Emily Greene Balch)	미국	사회정치학자 및 평화주의자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연맹"의 공동 창시자
1976년	메이리드 코리건(Mairead Corrigan)	북아일랜드	평화행진의 조직과 1976년에 북아일랜드 평화운동 창시자
1979년	마더 테레사 (Agnes Gonxha Bojaxhiu)	인도	"사랑의 선교회"수녀단의 창시자 캘커타의 죽은 자의 집과 빈민구호소의 지도자
1982년	알바 뮌달 (Alva Reimer Myrdal)	스웨덴	외교관 및 작가, 국제 군축회의에서 일했다. '군비축소의 사기도박'편자
1991년	아웅산 수지 (Aung San Suu Kyi)	미얀마	미얀마의 민주주의 운동의 공동창시자 및 상징적 인물
1992년	리고베르타 멘추 (Rigoberta Menchu Tum)	과테말라	키체 인디언 농부동맹을 위한 위원회 의장
1997년	조디 윌리엄스 (Jody Williams)	미국	국제 지뢰 금지 운동 주도
2003년	시린 에바디(Shirin Ebadi)	이란	이란 아동인권위원회 창립 회장
2004년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	케냐	그린벨트 운동을 통해 아프리카의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에 기여 (3인공동수상)
2011년	엘렌 존슨-실리프 (Ellen Johnson-Sirleaf)	라이베리아	부패에 대한 과도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대선에 출마 대통령에 당선.
	레이마 보웨(Leymah Gbowee)	라이베리아	2차 내전을 평화스런 방법으로 끝내는데 기여함
	타와클 카르만(Tawakel Karman)	예멘	독재정권에 맞서 인권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며, 정권을 비판하는 반정부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

코윈 미서부 지회소식

KOWIN Orange County 지회 제니 리 회장



LA지부 뉴스레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OC 지회는 다른 지회와 달리 1.5세의 회원들이 많은것이 특이합니다. 이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건강, 법률 등 전반에 걸쳐서 한인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타민족들과 한인 2세들에게 한국 음식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베트남계는 앞치마를 입고 바비큐 소스를 넣는 갈비, 불고기를 양념하여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지도하는 '요리교실' 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 에도 기여하고, 타인종이 한국식당 방문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민족 여성네트워크측은 '베트남 상공회의소' 와 아시안 전문업 종사자들의 모임인 'APEX', 오렌지카운티의 중국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여성지도자로서의 활동범위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KOWIN OC 지회 온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인커뮤니티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KOWIN San Diego 지회 유니스 리 회장



뉴스레터 4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코윈 샌디에고 지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동포들에게 한국여성의 능력과 리더십으로 한국을 알리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며 차세대들에게는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며, 또한 부드러운 여성의 힘으로 실속있게 미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여성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세계화를 위해 김치, 떡볶이,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맛을 선보이며, 주류인사들과 많은 동포인사들에게 소개하여 성공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린다 비스타 다민족 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약 8,00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사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1월에는 샌디에고 풍물학교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를 통하여 차세대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업에 주력하여 재외 한인 네트워크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전진하겠습니다.

KOWIN San Franscico 지회 서순희 회장



안녕하십니까 KOWIN 샌프란시스코 지회장 서순희입니다. 먼저 LA지부 뉴스레터 4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이정순 서부담당관님을 모시고 북가주 한인여성지도자 40여명과 함께 서로의 활동을 지원,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가주지역의 차세대 정치리더를 지원, 육성하여 한인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부터 함께 교류하고 있는 다민족여성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KOWIN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교육 분야에서도 회원들의 꾸준한 활동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초청 개인전을 개최하고, 한국어 정규반 개설 등으로 우리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한인여성리더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자 샌프란시스코 지회는 회원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KOWIN Arizona 지회 오수경 회장



LA지회 뉴스레터 통권 4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애리조나 지회는 작년에 창립된 후 주로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타 단체를 후원하는 쪽으로 활동하다가 올해부터 자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봄에는 여성 건강 세미나를 열었고 가을엔 작가와의 만남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주 일요일에는 Susan G. Komen Breast Cancer Foundation 에서 주최하는 하프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프마라톤을 한 건 아니구요 5K Run에 참가해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홍보해서 우리 회원이 아닌 분들과 함께 뛰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건강에도 좋고 유방암 재단도 도움으로써 한인 커뮤니티와 메인스트림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참가해보니 참 좋더군요. 회원들 모두 많이 감동하고 정기 행사로 추진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마음으로 AZ지회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을 위한 노래

김영교 시인, 미주문협 부이사장

정체성과 소속감 부재가 무너질 듯 비틀거리는
이민 별관

전지구화 시대에 맞는 친절한 말과 신속한 처신이
별처럼 희망처럼 소통의 기초가 되어
감감한 밤 위태로운 절벽에서도 일으켜 세우는 여인들이 있어

한 가정의 화목을 책임지고 한 생을 바친
바다건너에도
정신적 국경을 넓혀온 용감하고 지혜로운 어미들이 있어

생명 지속의 이웃을 위해 여성들의 힘을 결집
건네주는 이타의 눈빛과 배품의 손길들
불만의 겨울은 그 격려와 용기에 녹아지나니

이제 세상은
속도와 정보가 앞서 가는 클릭 지구촌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 지도자의 필요성에
글로벌 리더, 저마다 구별된 통찰력과 지식을 품고
역사를 창출하는 한민족 여성들이여 우뚝 서리라

그 소중한 경험과 더 없이 맑은 해안을 기우려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꿈과 비전, 사랑과 전통, 우애의 교류 그 굳건한 발판에 서서
세계 안에 화합하는 하나됨의 정신으로
자유 평화를 사랑하리
그린 지구를 사랑하리

차세대 여성 리더들의 의지와 기대
친환경의 절박성에 참여
네트워크의 긴밀성에 다가가
솔선수범의 섬김으로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계승과 발전을 향해
지역사회에 헌신하리라
인류공헌에 선두 주자가 되리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한민성 한다면 하는 한국의 여성들
민족과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한국의 여성들
성이 잘 때까지 노력하는 자랑스런 한국의 여성들!

김용임



세한여 세계 36개국에서 활동하는 자랑스런 Kowin의 가족이여!
한 민족 네트워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여러 모양과 다른 문화로 만난 타 민족에게 맛과 미를 겸한
한식을 통해 우리 고유문화를 알립니다!

이영희



세한여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한민족 여성들
한마음과 한뜻으로 Kowin의 날개 아래 네트워크를 이루며
여기 미국 LA 보금자리에서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높이 날아 오르리

이혜심



세여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여성들의 노고가 Kowin 의 빛으로
계속 차세대들 위에 영원히 빛나리!

정정숙



세그한 세계는 하나입니다
크나큰 야망을 가진 세계 각국의 한민족 여성들도 하나로 뭉쳐
한국의 밝은 미래와 함께 세계속으로 전진합니다!

박현숙



한민족 한 아름 어머니 가슴 속에
민족의 미래를 가득 담은 채
족한 마음담지 않고, 한민족 머리에 이고
세계로 세계로 헤쳐 나가는 한국 여성들이여!

김명신



계여성 계산하고 사는 인생
여유로움은 없어지고
성취감도 떨어진다.

최인순



그여한 크고 넓고 깊다는 온 세계를 구석 구석 다 다녀 보아도
여기 저기 온 천지 다 둘러 눈 씻고 찾아보아도
한국여자 특히 KOWIN 여성처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은 없더라!

김경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한여그 한국(모국)과 세계의 여성 지도자들의 모임 KOWIN
여성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시여
크나큰 모국과 거주국을 win-win 하는 mentor로 영원하여라!

오은영



세한여 세로로도 가로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모인
여성들의 슬기로운 단체 힘차게 뻗으라~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 이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김지영



한세성 한결 같은 우리의 맑은 맘
세월을 이기는
성숙한 여인이 되기를...

전정미



한민세 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그 무거웠던 족쇄를 풀고
세계를 주도하는 모습 자랑스러워라

박영연



여위세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그 누가 말했나요?
위대 세상에, 정말로 Kowin 여성들을 보고도 그 말이 나올까요?
세명의 여자가 모이면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요즘 시대랍니다.

정영태



한여성 한이 서린 나라라고 누가 말했던가
여명이 밝아오는 태평양바다를 바라보며
성취의 기쁨을 맞는 201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현정



세한그 세계로 향한 글로벌 한민족 여성들!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알리자
크고, 넓고, 높게.... 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

권명주



세한여 세계로 뻗어나간 우리의 핏줄기
한민족네트워크 가지마다 꽃피어
여성의 별이 되어 밤하늘을 빛내리

이계주

蔚山每日

울산매일 iusm.co.kr

단기 4344년(음력 8월 3일 戊午)
2011년 8월 31일 수요일 제5787호



30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회식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박맹우 시장, 김복만 교육감,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등 내빈들과 여성리더들이 손을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co@iusm.co.kr

“여성리더 경험과 지혜로 녹색혁명 선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32개국 500여명 참가

미국과 독일 등 세계 32개 나라에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여성지도자 200명과 국내 여성지도자 330명 등 500여명이 생애도시 울산에서 “그린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관련기사 3편**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와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 지도자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인 '201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글로벌 한민족 여성, 그린코리아를 이끈다' 주제의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이틀째인 30일 오전 10시 롯데호텔에서 박맹우 시장과 백희영 장관,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최영희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개회식에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개회식에서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외형적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내용도 한층 풍부해졌다”며 “울산에서 개최하는 올해 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여성리더들의 경험과 지혜가 그린 기술을 선도하고 생활의 녹색혁명을 이루기 위한 한민족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맹우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

나라 근대화의 메카이면서 산업수도인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외 여성 리더들이 모여 국가의 비전과 미래 그리고 “그린코리아”를 논의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며 “울산회의가 한민족 여성들의 역할을 더 키우고 글로벌 코리아의 국격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은 개회식에 이어 “역사 속에서 평화를 일군 여성들”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백제 건국의 어머니 소서노와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선덕여왕, 신라왕당, 정부인 안동장씨 등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주인의식과 전문성, 자긍심을 아우른 이른바 주

전자 정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개회식과 기조연설에 이어 오후에는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과 이원복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하지만 예코맘코리아 대표의 경제, 문화, 환경에 대한 주제별 강연과 경제·문화·환경·미래로 가는 주제별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한편 행사 사흘째인 31일은 KBS 구수환 PD의 <나눔도 신 한류다> 세계가 주목한 이태석 리더십)주제의 특별강연과 활동분야별 네트워킹 그리고 박맹우 시장이 주최하는 오찬, 산업시찰 및 문화탐방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다.

이연옥 기자 yorhee@iusm.co.kr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1년 1월 18일 화요일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KOWIN 이해심 회장단 출범 매달 세미나·한국문화 홍보



KOWIN LA지부 7기 회장단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해심 회장, 정영태 출판위원장, 남일리 재무, 권영주 부회장, 이영희 서부지역 담당관. (김지민 인턴기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LA지부가 7기 회장단을 새로 구성하고 차세대 여성 리더 양성과 한국 문화 홍보에 주력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KOWIN LA지부 이해심 신임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소수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데 이제는 한인 여성들 스스로 위상을 제고해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때”라고 밝혔다.

KOWIN은 지난 2001년에 한국 여성부가 출범하며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민족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전 세계 36개국에 지부가 있다. 미국에서는 LA와 워싱턴, 뉴욕 등 8개 지부가 있으며 LA지부에서는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연계해 네트워크 확대와 회원 발굴을 담당하는 미국 서부지역 이영희 담당관은 “KOWIN은 자생적인 지역 단체와 달리 한국 정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국과 한인 사회의 징검다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원 모두가 한국의 문화와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대사인 셈”이라고 말했다.

KOWIN LA지부는 올해 매달 전문성이 있는 회원들이 강사로 나서 문화와 경제, 리더십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주류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오는 6월에는 한인 여성 리더들이 LA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또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한국의 여성 정치인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차세대 한인 여성 리더들을 영입해 미국과 한국의 한인 여성들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목표도 갖고 있다.

KOWIN LA지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회장단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연회비는 100달러다.

문의 (213)700-9756 (김연신 기자)



▶ 2010년 12월, 신규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JJ Grand Hotel)



▶ 1월 정기회의를 마치고



▶ 김윤옥 영부인 초청 청와대 방문



▶ 여성지도자 간담회 (김금래, 이애주, 최영희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JJ Grand Hotel



▶ 차세대 리더쉽 컨퍼런스 (나경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Double Tree Hotel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총회 중 다문화권 어린이들에게 도서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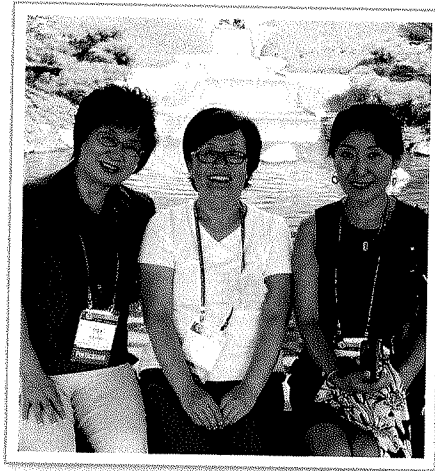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총회 (울산)



▶ 경주 불국사에서 (문화탐방)



▶ 차세대 리더쉽 컨퍼런스에서
Double Tree Hotel



▶ 울산 총회를 마치고



▶ 일본지진돕기 모금활동 (한남체인 앞)



▶ 3월 정기회의 (전사라 회원 자택)



▶ 신연성 LA 총영사님 환영회
JJ Grand Hotel



▶ 차세대 리더쉽 컨퍼런스에서
(교육분과 플엘레나 교장)



▶ 1월 정기회의, 공예강습을 마치고
(권유나 홍보위원장 자택)



▶ 울산총회에서



▶ 울산총회에서



▶ 국회의사당 방문



▶ 신연성 신임 총영사님과 임원진 상견례 (LA 총영사관)



▶ 김재수 전 총영사님 환송회 (총영사관 관저)



▶ 회의를 마치고 티타임 (뉴서울호텔)

미서부 LA 지회 제6대 임원진 (2011년도)

회 장	이혜심
부회장	권명주 · 이영복
총 무	김안나
재 무	이영복
서 기	김경자
부서기	최김벌리
감 사	김용임 · 최인순
홍보위원장	권유나
편집위원장	정영태
고 문	김정혜 · 박영연 · 오은영
	유웬디 · 이계주 · 이영희
자문위원	손혜숙 · 수지오
	유분자 · 이정희

역대 회장

1 대	박영연
2 대	김정혜
3 대	이순희
4 대	신헬렌
5 대	이계주

미 서부지역 담당관

1 대	오은영
2 대	오은영
3 대	유웬디
4 대	이영희
(현) 5 대	이정순

미서부 LA지회 2011 활동

활 동 내 용	
2010년 11월 총회에서 이혜심 회장 선출	
1월	1월 임원회의: 1월 6일, 뉴서울 호텔 / 1월 정기회의: 1월 11일, 권유나홍보위원장 자택 ■ 신임 회장단 언론사방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 크리스탈 공예강습 (강사: 김경자서기) ■ 전통 문화지도사 초청 국악강습 (강사: 양혜경, 나성영락교회) ■ 회원 배가운동
2월	2월 임원회의: 2월 7일, 뉴서울 호텔 2월 정기회의: 2월 25일, J.J. Grand Hotel ■ 김재수 LA 총영사 초청 신년오찬 (총영사관저) ■ 강원청소년 비전네트워크 샘실열린학교 방문단 오찬제공 및 견학안내 ■ 국회의원 초청 여성지도자 간담회 (J.J. Grand Hotel) * 최영희(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 김금래(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 · 이애주(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
3월	3월 임원회의: 3월 7일, 뉴서울 호텔 3월 정기회의: 3월 19일, 전사라회원 자택 ■ 봄철 피부관리 Workshop (강사: 클레오파트라 스킨케어 김용임원장) ■ 일본지진피해자 돕기 가두모금 (한남체인) ■ 한국일보/중앙일보에 \$1,000.00 전달 ■ 소망소사이어터 3주년 행사 참석, KOWIN에 감사패 전달 (월서플라자호텔)
4월	4월 임원회의: 4월 4일, 뉴서울호텔 4월 정기회의: 4월 18일, J.J. Grand Hotel ■ 나경원 국회의원 초청 차세대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홍보 및 방송 인터뷰 (라디오 서울) ■ 신연성 신임총영사 방문 간담회 (LA총영사관) ■ 신연성 신임총영사 환영회 (J.J. Grand Hotel) ■ KOWIN 미 서부지역 차기담당관 Election Committee 모임 (뉴서울호텔)
5월	5월 임원회의: 5월 2일, 뉴서울 호텔 5월 정기회의: 5월 16일, J.J. Grand Hotel ■ 여성리더십컨퍼런스 준비위원회의 (권명주 준비위원장) ■ 차세대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초청장 배부 ■ 홍콩 차세대 여성경제인 양성 프로그램 추천, 홍콩컨벤션 KOWINNER 협조 요청 ■ KOWIN 비영리단체 등록 Renew에 따른 CPA사무실의 진행보고
6월	6월 정기회의: 6월 8일, 뉴서울호텔 ■ 차세대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6월 11일, Double Tree Hotel (나경원국회의원 기조연설, Dr. Suzie Oh 강연) ■ 신연성 총영사 초청 만찬 (총영사 관저) ■ 컨퍼런스행사장 준비위원 방문 (Double Tree Hotel) ■ 미주한인정치컨퍼런스 차세대 리더십 포럼참석 (Wilshire Grand Hotel) ■ 차세대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홍보 및 방송인터뷰 (라디오 코리아) ■ 차세대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Evaluation (뉴서울호텔)
7월	7월 정기회의: 7월 18일, J.J. Grand Hotel ■ 차세대 여성리더십 컨퍼런스 행사보고: 수입 및 지출 회계보고, 평가설문지 조사결과 보고, 행사사진 CD배부 ■ 사정에 따라 이영복 부회장의 재우업무 병행 승인 ■ 제11주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울산대회 참가안내
8월	8월 정기회의: 8월 4일, 뉴서울호텔 ■ 201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울산대회: 8월 29일~9월 1일, 울산 롯데 및 현대호텔 ■ 201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울산대회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 미주동포재단 주최 '자랑스런 한국인상 시상식' 참석 (Marriott Hotel) ■ 201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울산대회 후 김용임감사 만찬초청 (조선호텔) ■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접견 (국회의사당)
9월	9월 정기회의: 9월 26일, 뉴서울호텔 ■ 2011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울산대회 참가보고 ■ 한인가정상담소 기금모금 만찬 참석 (Park's Residence) ■ Newsletter 통권4호 발간계획 및 편집위원회 구성
10월	10월 임원회의: 1월 2일, 뉴서울호텔 10월 정기회의: 10월 17일, J.J. Grand Hotel ■ 회원 단합을 위한 Callaway Winery 나들이 ■ 편집위원 1차 모임, 칼라인쇄소 방문 ■ 편집위원 2차 모임, 원고 및 사진정리
11월	11월 임원회의: 11월 7일, 뉴서울호텔 11월 정기회의: 11월 21일, J.J. Grand Hotel ■ 편집위원 3차모임, 원고교정 및 편집마감 ■ 이정순 담당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전달 (회장 회무 임기는 지역담당관의 임기 준용)
12월	12월 정기회의: 12월 1일, J.J. Grand Hotel ■ 송년의 밤 ■ Newsletter 통권 제4호 배부 및 발송

미서부 LA지회 회원 명단

	Name / E-mail	Occupation / Remarks	총회참석
1	강선자 Sun Ja Kang sunja312@hotmail.com	Sparkly Maintenance Inc., Hongik Institute Artist	
2	권명주 Myung Zoo Kwun kwunmyungzoo@gmail.com	민주평통 LA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KOWIN 부회장 나라사랑어머니회 미시건 지부 초대 회장	2·8·10·11회
3	권유나 Yuna Kwon e.yuna@yahoo.com	IZAN CFO, KOWIN 홍보위원장	10·11회
4	김경자 Kyung Ja Kim kyungkim@yahoo.com	Artist, KOWIN 서기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미주지역 사무차장	10회
5	김명신 Myung S. Kim msk1209@gmail.com	World Financial Group Consultant & Realtor	
6	김수잔 Susan Kim spksk@aol.com	Asiana Express CEO	
7	김안나 Anna Kim annajkim@yahoo.com	Kelly's Coffee 대표, KOWIN 총무	
8	김영교 Young Kyo Kim kimyoungkyo@hotmail.com	Poet, 미주문협 부이사장	
9	김용임 Alice Kim newseoulhotelchloe@gmail.com	New Seoul Hotel 대표, KOWIN 감사 글로벌어린이재단 이사	11회
10	김정혜 Jung Hae Kim jkim01@lausd.net	KOWIN 2대 회장, KOWIN 고문 Wilton Elementary School 교장	1·6·10회
11	김지영 Ji Young Kim pyunji77@hanmail.net	Dental Miracle CEO, Educator	
12	남말리 Millie Nam millienam@yahoo.com	Business, 남가주 호남향우회 전 회장	
13	박그레이스 Grace Park grace77trading@yahoo.com	Blossom by Grace INC. CEO	11회
14	박미애 Mi Ae Park miae.park@hanmail.net	심스 백화점 대표	
15	박영연 Young Y. Park annepark37@hotmail.com	KOWIN 초대회장, KOWIN 고문	2회
16	박윤정 Ellen Park epark@hlpusd.k12.ca.us	Wedgeworth Elementary School 교장 Pyung Tong L.A. Education Committee Chair	
17	박현숙 Sue Park suepark0723@hotmail.com	Lucky Property Management 대표, Artist	11회
18	손혜숙 Helen Sohn helensohn@yahoo.com	동부한국학교 교장, KOWIN 자문위원	9·10회
19	신현정 Grace Shin graceshin2003@yahoo.com	Financial Manager, Educator	11회
20	심 진 Jean Shim jean@partners.us.com	Partner's CEO, 드림웨딩 뱅킷 홀 대표	5회
21	안혜임 Hye Im Ahn ahiclara@gmail.com	California Edu Center President, Educator	
22	오수지 Suzie Oh drsuzieoh@gmail.com	3가 Elementary School 교장, KOWIN 자문위원	2·3회

	Name / E-mail	Occupation / Remarks	총회참석
23	오은영 Grace Oh ohgrace77@hotmail.com	KOWIN 1, 2대 미 서부담당관, KOWIN 고문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홍보대사	1~11회
24	원마리 Marie M. Won mariemyung1@yahoo.com	Art Director of Hongik Minwha	
25	유웬디 Wendy Yoo ockahiec@yahoo.com	KOWIN 3대 미 서부담당관, KOWIN 고문 OC한인회 전 회장, OC한인건강정보교육센터 소장	1~7·9회
26	유분자 Boon Ja Yoo busybeecorp@msn.com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KOWIN 자문위원	1회
27	유조이스 Joyce Yoo yejee77@gmail.com	현대종합병원	
28	윤조앤 Joann Yoon ddanorman@hotmail.com	MISS JOANN INC. 대표	4회
29	이계주 Kye Joo Lee kyejoolee@sbcglobal.net	KOWIN 5대 회장, KOWIN 고문 Chairman of The Castle Foundation	5·9·10회
30	이명신 Klara M. Kanai klarakanai@gmail.com	Interior Designer	
31	이영복 Elisabeth Lee bonabaek@hotmail.com	Angel Village 대표, KOWIN 부회장 / 재무	7·10·11회
32	이영희 Grace Y. Lee charlesklee@cox.net	KOWIN 4대 미 서부담당관, KOWIN 고문 살롱여성합창단 단장, OC한인회 전 이사장	1·5·9·10·11회
33	이정희 Jeoung Lee jlee@jphconsultinginc.com	JPH Consulting INC. CEO, KOWIN 자문위원	9회
34	이혜심 Heather Lee heaslee422@sbcglobal.net	나성영락한국학교 교장, KOWIN LA 회장	7·10·11회
35	전사라 Sarah Jun sjunlaw@gmail.com	Attorney	
36	전정구 Chong Ku Chun chongkuchun@yahoo.com	한의사, Natural Family Healing Center	
37	전정미 Chong Mi Chun jaungmhwang@yahoo.com	전 Kings County Hosp. SUH NY 소아과 의사	
38	정영태 Yong T. Chong ujyongtae@yahoo.co.kr	열린문복음선교회 이사장, KOWIN 편집위원장	5·10·11회
39	정정숙 Byung Jhung bjjhung@yahoo.com	Educator, 수필가	11회
40	지희순 Hee Soon Gi minjin1226@hotmail.com	글로벌어린이재단 서부지역 회장 민주평통 LA 협의회 고문	8회
41	최인순 Lyun Choi tongs.fish@yahoo.com	Tong's Tropical 대표, KOWIN 감사	9회
42	최킴벌리 Kimberly Choi blueacici@hotmail.com	Artist, KOWIN 부서기	
43	폴엘레나 Elena Paul epaul@hlpusd.k12.ca.us	Wilson High School 교장	

A is for apple,  **B** is for boat, 

That used to be right, but now it won't float!
Age before beauty is what we once said, but let's be a bit more realistic instead.

New Alphabet

A 's for arthritis;	B 's the bad back,	C 's the chest pains, perhaps car-di-ac?
D is for dental decay and decline,	E is for eyesight, can't read that top line!	G is for gas which I'd rather not mention.
F is for fissures and fluid retention,	H high blood pressure--I'd rather it low;	I for incisions with scars you can show.
J is for joints, out of socket, won't mend,	K is for knees that crack when they bend.	M is for memory, I forget what comes next.
L 's for libido, what happened to sex?	N is neuralgia, in nerves way down low;	O is for osteo, bones that don't grow!
P for prescriptions, I have quite a few, just give me a pill and I'll be good as new!	Q is for queasy, is it fatal or flu?	R is for reflux, one meal turns to two.
S is for sleepless nights, counting my fears,	T is for Tinnitus; bells in my ears!	V for vertigo, that's 'dizzy,' you know.
U is for urinary; troubles with flow;	X is for X ray, and what might be found.	Z is for zest I still have--in my mind.
W for worry, now what's going 'round?		
Y for another year I'm left here beh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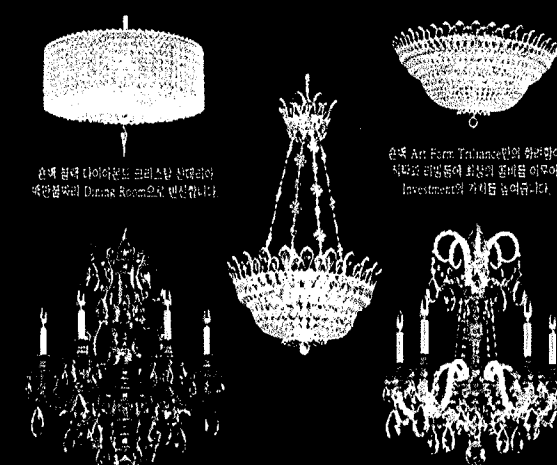
*I've survived all the symptoms,
my body's deployed, and I'm keeping twenty-six doctors fully employed!*

홈 라이팅 **SCHONBEK**

CRYSTAL
The Beautiful Investment

환상의 손백 ROCOCO 명품
오직 홈라이팅에서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 유일의 **SCHONBEK** 달려 홈라이팅



손백 달러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샹들리에
예약판매! Dining Room에 반짝입니다.

손백 Art Form Tolerance(탄의 한라암이
차라리 광택되어 최상의 판매를 이루어
Investment의 가치도 높여줍니다.

빛나는 손백 크리스탈 샹들리에
도도한 차라를 자랑합니다.

빛나, 아름다움 등 12가지의 Finish가 가능하며
손백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화롭게 어울려
공용차라만의 소중한 수 있는 명품입니다.

4 Melrose Ave. **홈라이팅** 323-957-1900

4611 Wilshire Blvd. Suite 200 Los Angeles, CA 90048

SCHONBEK 4611 Wilshire Blvd. Suite 200 Los Angeles, CA 90048

CLEOPATRA

SKIN CARE & LASER CENTER

당신도 클레오파트라 에 오시면
이집트의 최고미인
네테르티티 여왕처럼 될 수 있습니다!



CLEOPATRA

F. 213.487.5010

2666 W. OLYMPIC BLVD., #106
LOS ANGELES, CA 90006
CLEOPATRACEO@GMAIL.COM
(뉴서울호텔 사평센터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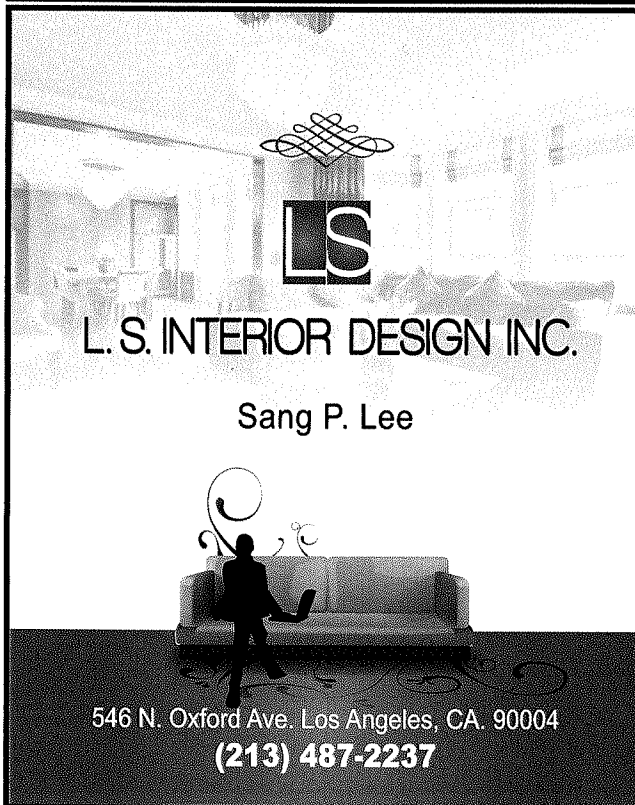
백화정

* 돼지 갈비 원조 *

(323) 935 - 5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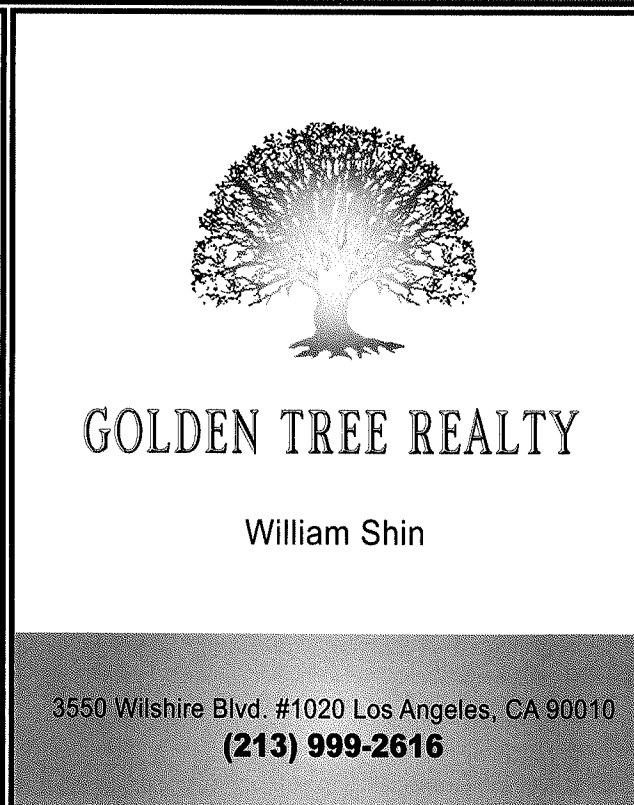
- 흑염소탕 전문
- 굴보쌈
- 김치삼겹살
- 염소무침
- 육회
- 두부김치

3929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 올림픽과 놀턴 코너 ■



LS
L. S. INTERIOR DESIGN INC.
Sang P. Lee

546 N.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4
(213) 487-2237



GOLDEN TREE REALTY
William Shin

3550 Wilshire Blvd. #1020 Los Angeles, CA 90010
(213) 999-2616



easternkoreanschool



교장 손혜숙

Heasook Sohn, Principal

동부 한국 학교

Eastern Korean School
www.easternkoreanschool.org

O.C. 한인건강 정보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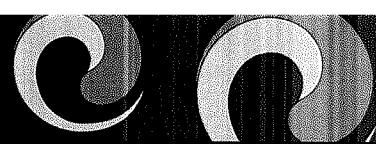
O.C. Korean American Health Information & Education Center

OCKAHIEC

Wendy Y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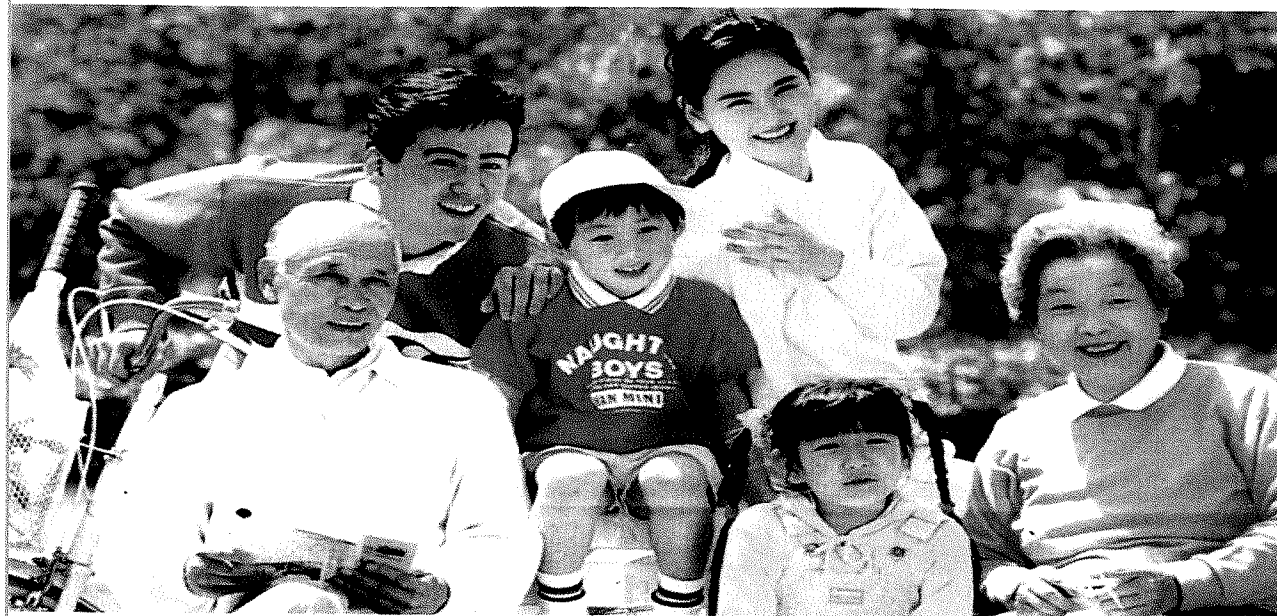
President / CEO

Tel. (714) 417-8004 (714) 741-0050 / Fax. (714) 741-0060
9636 Gardem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 ockahiec@yahoo.com



편안한 삶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 헌팅톤 양로병원

편안한 삶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한인 영양사와 한인 간호사가 정성껏 모시는 내집같이 아늑한 곳

L.A. Down Town 근처에 위치한 한국인을 위한 헌팅톤 양로병원은 한인 최초로 한인타운 중심부에 한국인을 위한 장기체류 노인 전문클리닉으로 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전문병원입니다. 저희 전직원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병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시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크고 넓은 주차장 및

부대 건물들은 환자가족 친지 모든 분들에게 쾌적함과 편리함을 드립니다. 더욱이 오랜 경험의 경영진은 환자 친지 가족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 회복 과정등을 상의 하실 수 있으며, 한인 간호사들은 환자들과의 쉬운 접촉으로 한인 환자들이 다른 어떤 양로원에서 보다도 가족과 같은 느낌으로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TEL : 323-225-5991
4154 S. Huntington Dr. LA., CA 90032



편집후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쓸쓸한 겨울바람 소리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주위를 둘러봅니다. 엇그제 첫 작품을 한 것 같았는데 벌써 통권 4호 발간을 앞 두다니... 빨리 서둘러야지 이 시간 내 마음이 조금씩 급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한편 감사의 물결이 강같이 흐르는 내 가슴위에 두 손을 모아 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코원가족들이 보람 있는 일들을 위하여 유쾌하게, 그리고 모범된 리더로 나가기 위하여 내딛은 우렁찬 발걸음 소리, 배움으로 향한 성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퍼즐 맞추듯 요리 조리 알뜰하게 지면에 담아 우리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로 남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네요. 축사를 보내주신 신연성 총영사님, 로레타 산체스의원님, 이정순 담당관님, 지희 소식을 보내주신 회장님들, 원고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과 광고로 도움을 주신 (권유나, 김용림, 박현숙, 손혜숙, 유웬디, 이혜심, 이정희)님, 특히 오늘의 코원이 있기 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영희 전 담당관님, 키는 작지만 포부는 다져스 운동장만한 이혜심 회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위원님들, 은 회원님들에게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편집위원장을 맡겨 주신 코원 엘에이가족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하는 저의 부족한 마음도 전합니다. 부디 이속에 담겨진 글들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먼 훗날 따뜻한 한잔의 커피향이 되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편집위원장 정영태>

■ 2011년 KOWIN LA NEWSLETTER 통권 제4호 ■

- 발행처 : KOWIN-LA
- 발행일 : 2011년 12월 1일
- 회장 : 이혜심
- 편집장 : 정영태
- 기획위원 : 김정혜 · 박영연 · 손혜숙 · 수지오 · 오은영 · 유분자 · 유웬디 · 이계주 · 이영희 · 이정희
- 편집위원 : 권명주 · 권유나 · 김경자 · 김안나 · 김용임 · 이영복 · 최인순 · 최김벌리